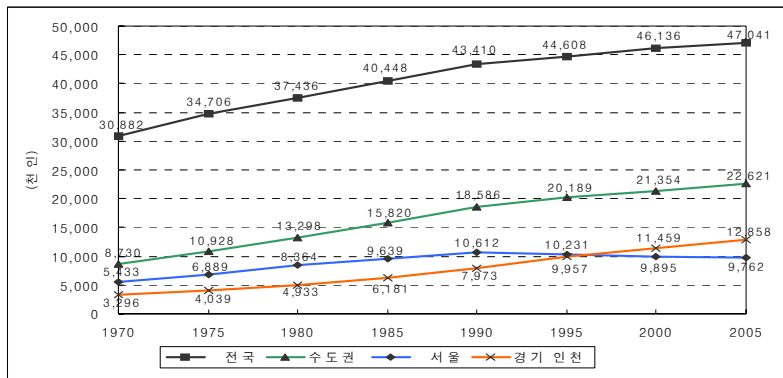


1. 수도권 및 서울시 상주인구 동향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한 수도권(서울시 및 인천, 경기도)의 상주인구는 총 2,262만인으로, 2000년과 비교해서 약 127만인이 증가하였다. 최근, 증가율은 둔화경향을 보이지만 상주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수도권 비중을 보면 1995년경을 고비로 경기·인천의 상주인구가 서울의 상주인구를 앞지르고 있다.

▼ 수도권 및 서울시 상주인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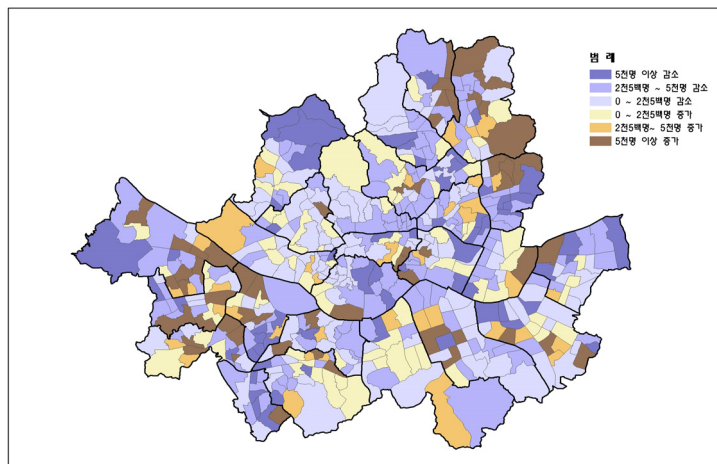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 서울시 행정동별 인구 변화 (1995년-2005년)

서울시는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대부분이 서울시 외곽의 신규 아파트 개발 지역들(노원구, 강서구 등)이다. 기성시가지들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일부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시 행정동별 인구 변화(1995년-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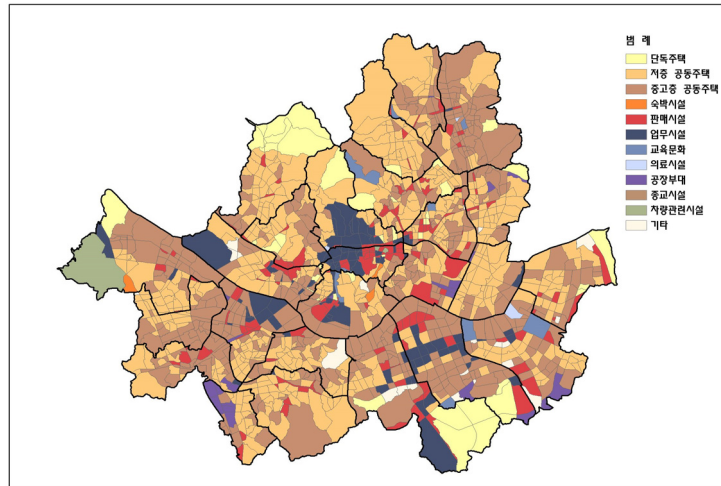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5, 2005.

3. 서울시 대블록별 건축물 이용현황 (2004년)

서울시의 블록별 건물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에 업무시설이 주로 분포하여 있고, 그 주변과 일부 지역중심에 판매시설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남지역에 중고층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울시 대블록별 건축물 이용현황(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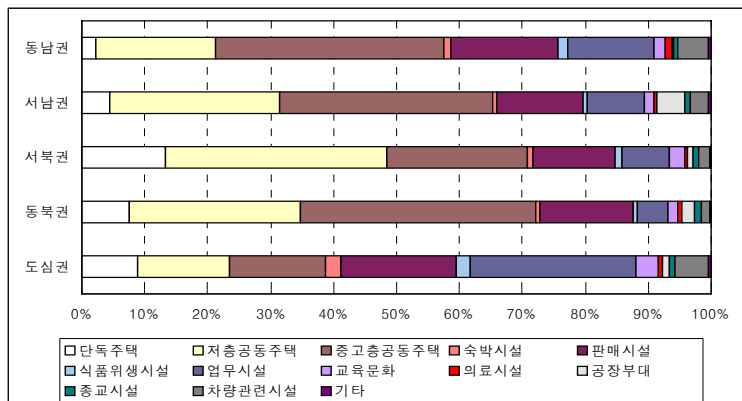


주 : 블록내 용도비율이 가장 높은 용도를 표현한 것임.
 자료 : 재산세 과세자료, 2004.

4. 서울시 대생활권별 건축물 이용현황 비율 (2004년)

서울시 대생활권별 건축물 이용현황 비율을 살펴보면, 서북권에서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권과 동북권은 중고층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판매와 업무시설은 도심권에서 비율이 높고, 동남권도 다른 생활권에 비해 비율이 높다.

▼ 서울시 대생활권별 건축물 이용현황 비율(2004년)



자료 : 재산세 과세자료, 2004.